

무주 태권도대회 성공 기원

무주군, '숲길 건강걷기 행사' 열려... 1000여 명 참가 성황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제1회 무주 숲길 건강 걷기 행사가 지난 3일 산골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무주군관광협의회와 무주군태권도지원육성추진위원회, 무주군태권도협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무주군 6개 읍면 주민들을 비롯해 산골영화제를 찾은 관람객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식전행사로 진행된 무주 연합 농악단 공연과 치어리더, 태권도 시범 공연을 함께 관람했으며, 관광무주선언문 낭독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기원 퍼포먼스로 이어진 기념식을 통해 대회성공을 응원했다.

황정수 군수는 "170여 개국에서 세계적인 태권도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세계 속에 태권도성지 무주를

알릴 좋은 기회이자 우리고장 무주에 숨을 불어넣을 에너지원"이라며 "다 함께 성원해주시고 성공의 기쁨 또한 함께 나눠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전 10시 30분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출발한 참가자들은 향로산 숲길 4km 구간(향로산 입구→향로정 제1전망대→향로산 자연휴양림→등나무운동장 도착)을 걸었다.

이날 숲길 걷기에 참가했던 심 모씨(38세, 서울)는 "영화제에 왔다가 숲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다"며 "아름다운 무주, 산골영화제의 고장 무주, 태권도원이 있는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무주군민들과 한마음으로 성원하겠다"고 전했다.

주민 김 모 씨(45, 무주읍)는 "아이들과 같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도 마음을 보낼 수 있는 기

회라 좋다"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세계적인 태권도선수들이 대거 참가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무주가 전 세계에 태권도성지로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170여 개국에서 1,900여 명이 참가해 남·녀 8체급 겨루기대회와 개·페막식, 문화행사 등을 치르게 된다.

이번 대회에는 아흐마드 아부가우시(요르단) 등 지난해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8명(남녀 4체급)을 비롯해 런던과 리우올림픽에서 2연패를 달성했던 제이드 존스(영국), 그리고 우리나라 김소희, 오혜리, 김태훈, 이대훈 등 세계적인 태권도 선수들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NH농협 무주군지부, 세계태권도대회 성공개최 적극 홍보

NH농협 무주군지부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NH농협 무주군지부 직원들이 홍보에 적극 나섰다.

무주군지부 직원들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통해 태권도 성지인 무주가 국내는 물론 세계 속에 알려지길 기대한다"면서 태권도대회 현수막을 게첨 하고 전 직원들이 태권도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 농협 305코너 지동화기기에 대회 홍보 광고도 하고 있다.

아울러, 대회일 내내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들과 관련자들이 환전 등 금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농협 무주군



NH농협 무주군지부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NH농협 무주군지부 직원들이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부 주관으로 국회에서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 대회 및 무주농산물 홍보 행사를 가져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노후 양계사 24개소 개보수 지원

현재 11개소 완료... 상반기 내 사업 완료 방침

진안군은 지난 2일 축사환경 개선이 필요한 노후 양계사 24개소를 대상으로 군비 1억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밝혔다.

양계사 시설 개보수 사업은 기존 노후 축사 개보수 및 차량소독기 설치 등 양계농가에서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시설 설치를 원하는 농가에 우선 지원한다.

양계사 시설 개보수를 원하는 양계농가는 누구든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11개소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양계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AI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양계농가 사육관리, 방역 등 자율적 체질개선과 체계적 축산 관리방안 마련으로 '청정 진안' 조성을 위한 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정 환경 유지와 악취 저감 등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분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에서 아토피 치유를'

진안군, 환경건강포럼 8일 개최

진안군은 세계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8일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2017 환경건강포럼을 개최한다.

'진안고원에서 아토피 치유를'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환경건강포럼은 생활환경에서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예방관리 방안 모색과 생활 속 아토피 예방 실천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2섹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섹션은 자녀의 아토피 질환에 대해 상담하는 아토피 전문가 토크와 주제발표, 제2섹션은 주제발표 내용을 토대로 패널 토의(총합토론)로 운영된다.

특히 전북대학교 임철완 명예교수의 아토피 예방과 치료, 산부인

과 허석준 과정의 임신환경과 아토피 기건강, 전북대 이현구 교수의 가려움증에 대한 연구, 전북대병원 정수진 박사의 아토피 환아 식이 치료의 실제 등으로 피부과 및 면역역학과 전문가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된 조립초등학교와 부귀중학교의 운영사례도 발표되며, 포럼 기간 동안 아토피 피부염 환아와 가족이 참여하는 아토피 힐링캠프도 진행 된다.

이항로 군수는 "아토피 환아와 가족 등 아토피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아토피로부터 힐링되는 포럼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번안면, 쌀·밭직불제 심사위 개최

장수군 번안면은 지난 1일 번안실에서 심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쌀·밭직불제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신청 접수한 쌀·밭직불제 대상 농가 총 919농가 547ha에 대한 농가별 실경작 여부 및 농지에 대한 적격여부를 집중 심사했다.

특히 신규 신청자 및 관외거주자 직불제 신청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변동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동향면, 사과농가 일손돕기

진안군 동향면과 건설교통과 직원 등 30여명은 지난 2일 본격적인 영농철 맞아 일손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산리 안영순씨 사과농장을 찾아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번 일손돕기를 통해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지리가 됐다.

성을경 면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일손돕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계면, 육십령 총령탑 환경정화

장수군 장계면 직원들과 장계 덕유회원 및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20여명은 지난 2일 육십령휴게소에 있는 총령탑 일원에 대해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날 총령탑을 찾았다.

총령탑은 6.25전쟁 직후 덕유산지구 공비토벌을 위하여 작전을 수행하다 산화한 국군영령들의 혼을 기리기 위해 2003년에 육십령에 설치되어 현충시설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길재 면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새기는 계기를 만들고자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으며, 덕유회원과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분들의 참여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장계 덕유회 신춘홍 회장은 "현충일 추념식을 지난 2003년부터 덕유회 주관으로 이곳 육십령 총령탑에서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면 직원들과 노인사회활동 참여자들의 협조로 더 의미있는 행사가 예상된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흥기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취임

장수한우지방공사 제2대 사장으로 장수군의회 김흥기 전 의원이 취임했다.

5월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공개채용에 따라 사장 후보로 추천된 김흥기 사장은 지난 1일 최용득 장수군수로 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고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신임 김흥기 사장은 공공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우량유전자 연구·개발을 통한 우량형질의 장수한우 고유품종 개발과 특화된 사양관리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

고, 우량형질 장수한우의 번식기반 조성을 위한 번식전문가 육성에 주력하는 것은 물론, 판로개척을 통한 유통체널의 다양화와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활동 강화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한우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장수한우지방공사의 비전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김흥기 사장의 취임식은 오는 8일 장수한우지방공사 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식중독예방·경영개선 및 친절서비스·식품위생법 등 강의

진안군은 지난 2일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250여명을 대상으로 진안 문화의 집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영업주들의 위생 개념 확립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통한 군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 김제보건소 박재만 소장의 '식중독예방'과 군장대학교 채수진 교수의 '점영업소 경영개선 및 친절서비스', 원광보건대학교 신형성 교수의 '식품위생법 해설'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받은 영업주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식품위생법 등을 알기 쉽게 알려줘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항로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위생등급제 도입에 적극 동참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진안고원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산물을 애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영업주는 매년 필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